

국내 라이선스 패션 잡지 화보에 나타난 글로벌리즘 경향

김 선 영

순천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부교수

요 약

본 연구는 글로벌리즘(glocalism)의 관점에서 국내 라이선스 패션 잡지 화보에 나타난 연출 경향을 고찰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리즘의 경향이 국내 라이선스 패션 잡지의 화보 스타일링에서도 중요한 현상임을 밝히고, 우리 문화에 대한 재인식과 이해의 폭을 넓혀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한 패션 스타일링 전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은 선행연구와 관련문헌을 통한 문헌고찰과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사례분석을 위한 화보는 『Vogue』와 『Harper's Bazaar』의 2007년 1월부터 2012년 8월호까지 전통 한복이나 한국적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는 소품을 활용하여 글로벌리즘을 반영한 화보 총 159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화보의 구성요소에 준하여 주제, 아이템, 소재, 색상, 문양과 장식소품, 화보 배경 등으로 분류하여 고찰한 결과 라이선스 패션 잡지에 나타난 글로벌리즘의 연출 경향은 첫째, 이상적인 미의 기준을 서구모델에 한정하던 것에서 벗어나 다국적 패션모델이 지면을 장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패션모델을 통한 화보연출로 지역적 특성을 부각시켰다. 둘째, 한국 고유의 명절이나 절기를 콘셉트로 전개하여 한국적 특징을 부각시켰고, 특히 주제와 부합되는 의복 아이템으로서 한복은 전통 장식소품, 메이크업, 헤어와 함께 특유의 곡선미와 비정형의 아름다움을 연출하였으며 새로운 시각에 의한 스타일링의 조화로 글로벌리즘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셋째, 전통 한복과 서양 복식의 혼합 및 창작방식의 해체에 의한 하이브리드 이미지 표현으로 전통 복식의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였고 지역적 경계를 초월한 글로벌리즘을 반영하였다. 넷째, 국내 아티스트와의 협업에 의한 예술화 표현으로 글로벌리즘의 경향을 반영함과 동시에 전통 복식과 아트의 융합으로서 우리의 복식문화를 현대적 예술작품의 하나로 승화시켰다.

주제어: 라이선스 패션 잡지, 화보, 글로벌리즘

I. 서론

패션 잡지는 현 시대의 사회문화적 현상 및 패션트렌드를 반영하며 대중과 패션 사이의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실용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미적기준을 벗어나 저마다의 개성과 차별화를 중요시하는 패션 트렌드의 흐름 속에서 잡지는 대중에게 첨단 패션의 트렌드 제시 및 토탈 패션으로서의 스타일링 제안 등 다양한 역할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인터넷이라는 첨단 환경 아래 새로운 패션정보의 동시 공유 시대가 전개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발행되는 라이선스 패션 잡지들의 확대 또한 대중에게 글로벌 패션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내 라이선스 패션 잡지의 역사가 20년에 이르면서 라이선스 패션 잡지는 전 세계적인 패션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동시에 국내의 동시대적인 상황을 소재로 삼으며 글로벌화와 로컬화의 과정이 자연스럽게 조화되어 표현되는¹⁾ 글로벌리즘(glocalism)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각 나라에 맞도록 현지화 된 방식으로 각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살려 라이선스 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리즘의 특징을 가장 잘 살리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독립적 기획주체에 의해 전개되는 패션 화보라 할 수 있다. 세계적인 패션 잡지가 라이선스 되는 과정에서 세계 패션의 동질화 및 무개성화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글로벌리즘을 반영한 다양한 기획 화보는 문화적 다양화 제시 및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패션 잡지에 관한 선행연구(김선영, 2007²⁾; 김순영, 2000³⁾; 노혜은, 2004⁴⁾; 오영희, 1984⁵⁾; 윤을요, 김일, 1998⁶⁾; 장지선, 김민자, 2010⁷⁾; 조우영, 2004⁸⁾; 조우영, 2011⁹⁾; 최세영, 2004¹⁰⁾; 최지순, 2000¹¹⁾; 홍예영, 2003¹²⁾)는 주로 패션 잡지의 변천, 패션 잡지에 나타난 스타일링이나 광고에 관한 연

구, 여성 잡지의 편집 디자인이나 표지디자인에 관한 연구, 국내 라이선스 패션 잡지의 지면 구성이나 기사 내용에 관한 연구, 국가별 편집디자인 경향 연구 및 라이선스 패션 잡지의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패션잡지 스토리텔링 특징과 내용변화 연구 등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글로벌리즘을 반영한 라이선스 패션 잡지 화보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적 이미지를 반영한 패션 화보를 통해 자국 문화를 세계화 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을 글로벌리즘으로 한정하고 국내 라이선스 패션 잡지에서 한국적 이미지 화보에 나타난 연출 경향을 고찰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과 로컬의 혼합, 즉 글로벌리즘의 경향이 국내 라이선스 패션 잡지의 화보 스타일링에서도 중요한 현상임을 밝히고, 우리 문화에 대한 재인식과 이해의 폭을 넓혀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한 패션 스타일링 전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패션 잡지에 연출된 화보는 다양한 패션 전문가들에 의해 연출된 새로운 패션 스타일의 제시로 이들이 제시하는 글로벌리즘 패션 연출을 분석한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동시에 국내 라이선스 패션 잡지의 글로벌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연구 방법은 선행연구와 관련문헌을 통한 문헌고찰과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분석 대상인 라이선스 패션 잡지 화보는 국내 라이선스 패션 잡지 중 판매부수 순위 및 글로벌 기준을 따르되 로컬화를 지향하고 있는 『Vogue』와 『Harper's Bazaar』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분석 자료의 선정은 2007년 1월부터 2012년 8월 호까지 화보촬영에 있어 전통 한복이나 한국적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는 소품을 활용하여 글로벌리즘을 반영한 화보 총 159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글로벌리즘의 개념

글로벌리즘이란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화(localization)가 결합된 신조어이다. 글로벌리즘은 원래 마케팅 분야에서 파생된 용어로 로컬한 단위에서의 생산물이 글로벌한 수준에서 소비되고, 다시 이 같은 글로벌한 단위가 로컬한 단위로 변화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오늘날 유사한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세계화가 존재하고 있고, 또 다른 편에서는 부분적이거나 세계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역, 국가 차원에서 고유한 문화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이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이중적 현상을 통칭하는 것이다. 즉 글로벌리즘은 글로벌한 단위와 로컬 단위가 서로 의존적이며 상호교환적인 개념¹³⁾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Tim(1994)¹⁴⁾은 포스트모던 시대에 있어 세계 각국이 민족문화와 경제구조 및 역사적 경계선 등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었고 글로벌 스페이스를 형성하게 됨에 따라 이 공간 속에서는 민족문화와 정체성이라는 전통성이 말살되고 타파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취약점은 글로벌 로컬이라는 범주에 의해서 극복되며 지역문화는 다른 문화와의 관계에 의해서 그 정체성을 획득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국제화와 세계화 추세 속에서 자국의 문화적 위축현상을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생겨나는 공간이 바로 세계적인 동시에 자국적인 공간이 되는 글로벌 로컬 공간이며, 이러한 공간의 발전이 바로 글로벌리즘 공간이라는 것이다. 윤호병(1999)¹⁵⁾은 이러한 문화 글로벌리즘은 레이몬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의 대중문화론, 자크 데리다(Jaques Derrida)의 해체주의,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광기의 역사,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의 문화 기호학, 마이크 페더스톤(Mike Featherstone)의 문화 세계화, 안토니 이스트호프(Antony Easthope)

의 문화 연구, 톰 린슨(Tom Linson)의 문화 제국주의,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의 비-서구중심주의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프랑스의 정치, 경제학자이자 문명비평가인 기 소르망(Guy Sorman) 역시 “세계화로 인해 현 세상은 단일 정체성에서 다중 정체성으로 변화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불가피하게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¹⁶⁾고 하면서 글로벌 정체성의 확립을 위한 글로벌리즘을 제안한 바 있다. 즉 다문화시대인 오늘날 글로벌리즘은 글로벌리즘과 로컬리즘에서 비롯되는 다공성과 비중심성을 조화롭게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¹⁷⁾이라고 할 수 있다. 무작정 외국 기준에 우리 것을 맞추는 무조건적인 세계화 방식이 아닌 세계적인 것을 우리 것으로 토착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 즉 로컬과 글로벌의 상호조화에 의한 글로벌리즘의 확산이 오늘날 추구되는 세계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2. 라이선스 패션 잡지에 관한 고찰

매스커뮤니케이션의 하나인 잡지는 프랑스어로 창고를 의미하는 ‘magasin’에 어원을 두고 있으며 읽을거리를 차곡차곡 넣는 창고를 의미한다.¹⁸⁾ 발행목적과 분야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게 되며, 패션 잡지의 경우 독자층, 편집장, 사진작가의 경향에 따라 서로 다른 분위기를 나타내지만 패션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¹⁹⁾

패션 잡지의 가장 큰 역할은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차배근(1990)²⁰⁾은 패션 잡지의 역할을 지적 커뮤니케이션의 역할, 간접적 설득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역할, 직접적 커뮤니케이션의 역할, 오락 기능에 대한 역할, 사회적 책임 역할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즉 다양한 시각적 자료와 함께 패션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전달이라는 지적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적인 입장에

<표 1> 국내 라이선스 패션 잡지의 예

라이선스 여성 패션 잡지	발행연도	국가	내용	라이선스 남성 패션 잡지	발행연도	국가	내용
엘르	1992	프랑스	각 잡지별 타깃 층을 상대로 여성 패션, 컬렉션, 뷰티, 문화, 예술 관련 이슈 및 트렌드 소개	에스콰이어	1995	미국	각 잡지별 타깃 층을 상대로 남성 패션, 문화, 예술, 뷰티, 레저 등 전반적인 남성 라이프스타일을 소개
마리끌레르	1993	프랑스		지큐	2001	미국	
마담 피가로	1994	프랑스		로피시엘 옴므	2011	프랑스	
하퍼스 바자	1995	미국		레옹	2012	일본	
보그	1996	미국		젠틀맨	2012	이탈리아	
코스모폴리탄	2000	미국					
보그 걸	2002	미국					
얼루어	2003	미국					
더블유	2005	미국					

서 패션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통해 많은 대중에게 패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토대를 마련하는 간접적 설득 커뮤니케이션, 의도된 목적이나 주제에 따라 연출함으로써 나타내는 직접적 커뮤니케이션, 다양한 관심분야에 대한 읽을거리 제공이라는 오락기능, 패션에 대한 선도적 사회 책임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패션 잡지는 세계 유명 패션 도시에서 창간된 글로벌 패션 잡지와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국내에서 발행되는 라이선스 패션 잡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그 예는 <표 1>과 같다. 1992년 『Elle』한국판을 시작으로 다수의 체결이 이루어졌고, 이후 1993년 『Marie Claire』, 1994년 『Madame Figaro』, 1995년 남성 패션 잡지 『Esquire』, 『Harper's Bazaar』, 1996년 『Vogue』, 2002년 『Vogue girl』, 2005년 『W』 등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 라이선스 패션 잡지는 급격한 양적 확대를 이루었다.²¹⁾ 이는 1987년 7월 우리나라가 세계 저작권 협약에 가입한 이후 증가 추세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으로, 2009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집계한 라이선스 잡지는 총 87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여성/패션 잡지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²²⁾

라이선스 패션 잡지는 세계 유명 잡지들의 앞

선 제작기술과 풍부한 잡지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패션정보 전달과 다양한 시각적 자료들로 트렌드의 변화를 제시하게 되는데, 특히 국내에서 발행되는 라이선스 패션 잡지의 편집은 본사의 글로벌 편집 방침을 기준으로 하지만 기사 선택에 있어서는 자율권이 주어지고 있는 등 라이선스 패션 잡지마다 각기 다른 계약 조건과 성격을 가지고 있다.²³⁾ 또한 라이선스 패션 잡지는 인쇄매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단순히 해외의 콘텐츠를 싣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생산한 콘텐츠를 함께 구성하여 재편집하는 글로벌화의 용이성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 본사의 기사 전체를 그대로 활용하거나 사진이나 텍스트만을 싣는 경우도 있지만, 기획방식의 응용 및 하나의 주제를 두고 각 나라별로 다르게 접근하여 편집하는 경우, 특히 로컬 특성에 맞게 자체 기획 주제를 제작하는 경우 라이선스 패션 잡지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여 글로벌리즘을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패션이라는 문화를 중심으로 동시대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라이선스 패션 잡지에 있어 화보는 패션디자이너의 작품과 함께 패션에디터, 포토그래퍼, 스타일리스트, 모델, 헤어 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래픽디자이너, 각 분야의 어시스턴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한

결과물으로써 기획된 주제에 부합되는 새로운 패션 스타일을 제시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화보는 사진 속에서 각각의 의상들이 모델에게 입혀지고 실존하는 공간 속에서 시각화되기 때문에 실생활과의 접목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의상 외에 헤어, 메이크업, 소품, 주변 환경과의 조화까지도 한눈에 인지 할 수 있어²⁴⁾ 감각적인 토탈 패션을 제시하는 중요 수단이라 할 수 있으며, 패션 잡지만이 지니는 특수한 차별성으로서 화보는 시각적 요소로 인하여 대중에게 큰 설득력을 지니게 되고 내용 전달적인 측면에서도 큰 효과를 거두게 된다.

라이선스 잡지 『Vogue』 편집장은 김은지(2010)²⁵⁾와의 인터뷰에서 “패션잡지의 글로벌화를 위해 화보에 한국의 옷과 자연, 문화를 담아내고, 우리의 것과 서양의 것을 구분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계를 뛰어넘은 우리 아름다움에 대해 접근해 나가고자 한다.”는 노력을 언급하였고, 특히 “한복 화보는 본사로부터 『Vogue』가 지향하는 비주얼의 질은 유지시키고 로컬 문화를 적절히 반영하여 독창적인 면을 선보였다는데서 큰 호평을 받았다.”고 밝혔다. 즉 한복이나 우리 고유의 명절 화보를 글로벌리즘을 반영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현정(2006)²⁶⁾은 한 브랜드의 세계화를 위한 패션 잡지의 화보 사진 유형을 한국적 용모의 모델, 한국적 이미지의 복식, 한국적 이미지의 배경, 한국적 이미지의 소품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고, 이러한 요인이 패션 잡지 화보에서 한국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즉 패션 잡지 화보에 있어 글로벌리즘의 반영은 우리 고유의 한복이나 한국적 이미지의 소품, 배경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경향은 우리 복식문화를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전통 한복의 세계화 및 세계화 속에서 우리 고유의 패션문화를 새롭게 부각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하였다.

Ⅲ. 국내 라이선스 패션 잡지 화보에 나타난 글로벌리즘 경향

1. 국내 라이선스 패션 잡지 화보에 나타난 글로벌리즘 분석

본 장에서는 국내 라이선스 패션 잡지 화보 중 한복이나 한국적 이미지의 소품을 활용하여 글로벌리즘을 반영한 총 159장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들 화보는 2007년 1월부터 2012년 8월호까지 『Vogue』와 『Harper's Bazaar』에 나타난 것으로 총 16개의 기획 주제에 의한 것이었다. 신년이나 구정을 특집으로 한 1, 2월호가 71건(44.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단오나 결혼 시즌에 콘셉트를 맞춘 4, 5월호가 36건(22.6%), 추석을 콘셉트로 한 9, 10월호가 30건(18.9%), 기타 콘셉트를 기획한 8월호가 22건(13.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써 주요 명절을 중심으로 한복의 아름다움이나 서양복과의 조합을 통해 한복의 새로운 스타일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화보의 배경은 야외에서 촬영된 경우가 19건(11.9%), 실내 스튜디오 촬영이 140건(88.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세트 배경 없이 진행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은 여성 잡지를 대상으로 하여, 여성 모델이 155건(97.5%)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남성 모델은 4건(2.5%)로 나타났다. 화보에 나타난 사진의 형태는 모델의 전신이 나온 경우가 123건(77.3%)로 가장 많았고, 3/4 컷이나 일부분만을 부각시킨 경우가 22건(13.8%), 상반신 14건(8.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복 아이템에 있어서는 한복이나 한국적 소품을 이용한 경우는 73건(45.9%), 한복과 서양복의 아이템, 각종 액세서리 등의 조화를 통해 하이브리드 이미지를 연출한 경우가 86건(54.1%)으로 나타났다. 본 장에서는 글로벌리즘의 관점 및 한 브랜드의

세계화를 위한 패션 잡지의 화보 사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김은지(2010)²⁷⁾와 이현정(2006)²⁸⁾의 연구를 참고하여 화보의 유형을 한복과 한국적 이미지의 소품 구성만으로 전개된 경우, 한복과 서양복의 조합으로 전개된 경우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고찰하였고, 화보의 구성요소에 준하여 기획된 주제, 아이덴, 소재, 색상, 문양과 장식소품, 화보 배경 등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1) 한복과 한국적 이미지의 소품으로 구성된 화보

<표 2>는 ‘일장춘몽(一場春夢)’을 주제로 전개

된 화보이다. <그림 1>에서 <그림 5>과 같이 한복의 다양한 아이덴들은 소재나 문양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연출하였고, 쪽머리나 가चे머리 등 전통 헤어스타일과 이미지만을 차용한 스타일, 그리고 한지 우산, 합죽선 등 다양한 한국적 이미지의 소품들로 한국 여인의 아름다움을 부각시켰다. 특히 스트라이프나 체크 문양 등 한복 소재에서 보기 힘든 독특한 이미지 연출은 국내 패션디자이너와 한복디자이너의 협업의 산물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장인들의 작품은 각종 장식소품으로 활용되어 전통 장신구에 대한 가치를 부각시켰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복 치마를 이브닝드레스와 같이 연출시킨

<표 2> 일장춘몽 화보 연출

주제	일장춘몽				
이미지					
	<그림 1> 일장춘몽 1 (출처: 『보그』, 2007. 1, p.385)	<그림 2> 일장춘몽 2 (출처: 『보그』, 2007. 1, p.384)	<그림 3> 일장춘몽 3 (출처: 『보그』, 2007. 1, p.379)	<그림 4> 일장춘몽 4 (출처: 『보그』, 2007. 1, p.389)	<그림 5> 일장춘몽 5 (출처: 『보그』, 2007. 1, p.381)
의복 아이템	저고리, 덧저고리, 홑겹 저고리, 다리속곳, 속속곳, 단속곳, 치마, 창기복 치마, 4겹치마, 3겹치마, 2겹치마, 오색 무지기치마, 배자, 너울, 당의, 버선 등				
색상	분홍, 파랑, 연두, 노랑, 청자, 보라, 핑크, 연핑크, 자주, 연분홍, 진달래색, 맑은 하늘색, 비취색, 미색, 흑색, 쪽빛, 연노랑, 홍색, 먹색, 백색 등 다양한 색상				
소재	명주, 생고사, 모시, 생사, 면, 옥사				
문양 및 기법	매화, 연꽃, 모란 등 다양한 꽃문양, 스트라이프, 김영체크문양, 자수기법 활용				
장식 소품	비단신, 꽃신, 브로치, 연지 합, 노리개가 장식된 너울, 비취단작 노리개가 장식된 부채, 전통국악기, 대나무 살 한지 우산, 밀화가락지, 깃털장식, 합죽선, 머리빗				
헤어	쪽머리, 가चे머리, 어유미의 이미지 연출, 땅은 긴 머리를 풀어 연출 자개, 칠보, 옥 등 다양한 장식의 뒤꽂이, 비취비녀, 옥비녀, 칠보비녀, 땡기 등으로 장식				
연출 특성	화장하거나 그네 타는 모습으로 헤원 신윤복의 풍속화 속 봄의 이미지나 신윤복의 미인도 이미지를 연출 저고리를 여미지 않고 풀어 연출하거나 모던한 디자인의 머리꽂이를 가슴에 브로치처럼 연출 디자이너 정구호와 세미고전 협업에 의한 스트라이프, 체크문양의 한복으로 전통적이면서도 하이브리드 이미지 연출				
화보 배경	매화나무, 그네, 자갈, 냇물 연출의 스튜디오				

<표 3> 풀 문 스토리 화보 연출

주제	풀 문 스토리				
이미지					
	<그림 6> 풀 문 스토리 1 (출처: 『보그』, 2007. 10, p.486)	<그림 7> 풀 문 스토리 2 (출처: 『보그』, 2007. 10, p.491)	<그림 8> 풀 문 스토리 3 (출처: 『보그』, 2007. 10, p.492)	<그림 9> 풀 문 스토리 4 (출처: 『보그』, 2007. 10, p.499)	<그림 10> 풀 문 스토리 5 (출처: 『보그』, 2007. 10, p.500)
의복 아이템	저고리, 치마, 13폭치마, 8폭치마, 2겹치마, 단속곳, 속속곳, 속바지, 속치마, 버선 등				
색상	보라, 청보라, 연두, 연노랑, 연분홍, 베이지, 스카이블루, 주황, 백색, 쪽색, 비취색, 먹홍색, 포도색, 연회색, 하늘색, 은색, 미색, 연산호색, 먹색, 소색 등				
소재	명주, 생명주, 모시, 박명주, 실크 섞어 짠 춘포원단, 향라, 홍두깨 모시, 삼베, 생초, 태국실크, 실크, 갑사				
문양 및 기법	꽃문양, 자수, 프린트 기법 및 홍화, 쪽, 포도 등 천연염색 활용				
장식 소품	고무신, 비단신, 꽃신, 실크로 만든 띠리, 과일, 호박				
헤어	모던한 뱅 스타일의 짧은 단발머리				
연출 특성	천연염색 소재의 한복 아이템, 대나무, 호박, 과일 등 자연물과의 조화로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한복이미지 연출 저고리 고름을 가슴둘레로 둘러매는 형식이나 모던한 헤어스타일로 소박하면서도 변화된 이미지 연출				
화보 배경	의자, 대나무, 고양이, 물 연출의 스튜디오				

<그림 5>의 경우 단아하면서도 관능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표 3>은 한가위를 맞이하여 ‘풀 문 스토리(full moon story)’라는 콘셉트로 전개된 화보이다. <그림 6>부터 <그림 10>에서 볼 수 있듯이 수확한 과일과 곡식들을 장식소품으로 연출하여 풍성한 한가위의 이미지와 아기 고양이나 대나무, 물 등을 활용하여 자연적인 이미지를 나타냈다. 또 포도, 쪽, 홍화 등 천연염색을 통해 표현되는 한복의 색상은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며, 한복 치맛자락을 걷어 올린 포즈를 통해 치마 밑에 가려진 한복 속옷 아이템이나 버선 등의 아름다움까지도 노출시켜 연출하였다. 특히 소녀와 성인 여성 모델 모두 뱅 스타일의 앞머리와 짧은 단발로 동일하게 연출된 헤어스타일은 복고적인 이미지까지도 나타내며 순수하고 소박한 아름다움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표 4> 역시 한가위를 중심으로 ‘풀 문 라이징(full moon rising)’의 콘셉트로 전개된 화보이다. <그림 11>부터 <그림 15>에서 볼 수 있듯이 추수된 벼와 솔잎, 송편 등을 소품으로 연출하여 한가위의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며, 쪽머리로 연출된 모델의 헤어, 치자, 홍화 등 천연염색을 통해 표현되는 한복의 색상, 모시, 명주, 삼베 등 전통 소재로 구성된 한복의 조합은 전통 한복의 단아한 아름다움을 부각시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얇은 모시나 삼베와 같이 비치는 소재를 통해 간접 노출된 인체와 비치는 속옷, 그리고 고름을 매지 않고 풀어진 채 착용된 모습 등은 노골적이지 않은 은유적 관능미까지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표 5>는 오곡백과를 추수하는 여유로움과 풍성함을 ‘하비스트 피스트(harvest feast)’의 콘셉트로 전개한 화보이다. <그림 16>부터 <그림 20>에서 볼 수 있듯이 소쿠리, 소반, 모시조각보 등 한

<표 4> 풀 문 라이징 화보 연출

주제	풀 문 라이징				
이미지					
	<그림 11> 풀 문 라이징 1 (출처: 『보그』, 2008. 9, p.492)	<그림 12> 풀 문 라이징 2 (출처: 『보그』, 2008. 9, p.495)	<그림 13> 풀 문 라이징 3 (출처: 『보그』, 2008. 9, p.498)	<그림 14> 풀 문 라이징 4 (출처: 『보그』, 2008. 9, p.497)	<그림 15> 풀 문 라이징 5 (출처: 『보그』, 2008. 9, p.499)
의복 아이템	저고리, 속저고리, 속적삼, 치마, 2겹치마, 속치마, 무지기 치마, 단속곳, 속속곳, 속바지, 두루마기, 버선				
색상	청색, 연노랑, 연두, 연보라, 베이지, 분홍, 소색, 백색, 옥색, 먹색, 쪽색, 살구 색 등				
소재	명주, 생명주, 홍두깨 모시, 옥사, 삼베, 생고사, 박 명주, 모시, 모본단, 먼 레이스				
문양 및 기법	꽃, 길상문양, 자수, 홍화, 치자 등 천연염색				
장식 소품	송편, 반상, 연꽃 민화 부채, 솔잎, 추수한 벼, 꽃과 열매가 든 바구니				
헤어	쪽머리				
연출 특성	모시와 명주 소재의 한복 아이템만으로 한국적 이미지 강조 송편, 솔잎, 추수된 벼 등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한가위 콘셉트를 부각 저고리를 여미지 않고 풀어 연출하거나, 고름을 가슴둘레로 둘러매어 연출				
화보 배경	세트 배경 없는 스튜디오				

<표 5> 하비스트 피스트 화보 연출

주제	하비스트 피스트				
이미지					
	<그림 16> 하비스트 피스트 1 (출처: 『보그』, 2008. 9, p.536)	<그림 17> 하비스트 피스트 2 (출처: 『보그』, 2008. 9, p.537)	<그림 18> 하비스트 피스트 3 (출처: 『보그』, 2008. 9, p.539)	<그림 19> 하비스트 피스트 4 (출처: 『보그』, 2008. 9, p.542)	<그림 20> 하비스트 피스트 5 (출처: 『보그』, 2008. 9, p.543)
의복 아이템	저고리, 깃 누빔 저고리, 치마, 무지기 치마, 단속곳, 버선				
색상	회색, 노랑, 연두, 베이지, 핑크, 초록, 파랑, 보라, 자주, 남색, 핑크, 블랙, 화이트, 아이보리, 하늘색, 옥색, 재색, 소색, 대주색, 겨자색, 먹자주색, 쪽색				
소재	명주, 모본단, 생초 견, 명주, 양단, 갑사, 옥사, 숙고사, 삼베, 실크 아사, 망사, 모시, 생사, 노방, 실크 자카드				
문양 및 기법	복단, 국화, 대나무, 석류 등 꽃문양, 자수, 프린트, 직조, 금박, 먹물 염색기법의 활용				
장식 소품	꽃신, 갓신, 파리, 주철상, 소쿠리, 소반, 방망이, 바구니, 조각 보자기, 구슬장식, 플라워 데코, 나비 브로치				
헤어	짧은 단발의 뱅 스타일				
연출 특성	한복과 한국이미지의 소품, 짧은 단발머리의 어린 소녀 모델의 연출로 오곡백과의 풍성함과 한국적 이미지 부각				
화보 배경	세트 배경 없는 스튜디오				

국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소품과 함께 플라워 데코장식을 조합하여 소박한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연출하였다. 특히 성인모델이 아닌 어린 소녀 모델을 중심으로 전개하여 꾸미지 않은 것과 같은 순수한 아름다움을 부각시켰으며, 헝클어진 것과 같이 연출된 짧은 뱅 스타일의 단발 헤어스타일 역시 자연스러움과 순수성의 이미지를 갖게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타이트한 상의 저고리의 실루엣과 대조되는 치마의 풍성한 실루엣은 오곡백과의 풍성함을 연상시키며 한복이 지닌 여유의 미학을 나타냈고, <그림 20>과 같이 그래픽적인 꽃무늬 프린트를 활용한 저고리는 모던한 현대적 감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표 6>은 전통 한국 여성의 아름다움을 ‘미인(美人)’의 개념으로 전개한 화보이다. <그림 21>부터 <그림 25>에서 볼 수 있듯이 어린 소녀에서 성숙한 여인에 이르기까지 전통 헤어스타일과 함께 한복과 각종 장신구만으로 단아하면서도 우아한

전통 미인상을 연출하였다. 특히 뱃씨 땡기나 아얌, 노리게 등의 소품, <그림 23>의 수목화를 연상시키는 프린트, <그림 24>의 강렬한 자수 장식 등은 전통의 이미지를 부각시켰고, <그림 23>와 같이 양털과 누빔, 자수 장식이 혼합된 배자나, <그림 25>의 변형된 두루마기 형태는 현대적 변형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갖게 하였다.

2) 한복과 서양복의 조합으로 구성된 화보

<표 7>은 ‘스플렌디드 한복(splendid hanbok)’을 콘셉트로 하여 한복의 화려한 오방색과 곡선의 미를 다양한 아이템의 혼성 및 착장방식의 해체로 표현한 화보이다. <그림 26>부터 <그림 30>에서 볼 수 있듯이 남녀의 성을 구분하지 않고 남녀 한복의 아이템과 일상복 및 예복, 관복, 군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통 한복의 아이템은 뷔스티에나 튜트, 영국 풍 왕관과 같이 서양복의 아이템이나 장식 소품들과 혼성되어 연출되었고 착장방식의 해

<표 6> 미인 화보 연출

주제	미인				
이미지					
	<그림 21> 미인 1 (출처: 『하퍼스 바자』, 2012. 2, p.317)	<그림 22> 미인 2 (출처: 『하퍼스 바자』, 2012. 2, p.321)	<그림 23> 미인 3 (출처: 『하퍼스 바자』, 2012. 2, p.324)	<그림 24> 미인 4 (출처: 『하퍼스 바자』, 2012. 2, p.325)	<그림 25> 미인 5 (출처: 『하퍼스 바자』, 2012. 2, p.320)
의복 아이템	저고리, 덧저고리, 치마, 거들 치마, 배자, 마고자, 두루마기				
색상	핑크, 노랑, 자주, 파랑, 보라, 물빛, 초록, 베이지, 주황, 겨자색, 소색, 잉크 색, 먹색 등				
소재	실크, 명크, 양털				
문양 및 기법	연꽃, 장미꽃, 조류 문양, 누빔, 자수, 직조, 수목화 이미지의 프린트 기법 활용				
장식 소품	뱃씨 땡기, 나비 모티브 노리게, 가락지, 토시, 목도리, 아얌				
헤어	땡기머리, 어여머리 변형 스타일 및 뒤꽂이 장식				
연출 특성	한복 아이템과 한국적 이미지의 장식 소품으로 한국적 미인의 이미지 연출				
화보 배경	세트 배경 없는 스튜디오				

체를 통해 독특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특히 한국적 용모의 모델이지만 짧은 커트나 은발로 염색된 헤어스타일은 이질적 이미지를 나타내며, <그림 26>은 걸치듯이 착용한 공주의 노의는 남성 관복인 조복의 대대와 후수, 화려한 비즈와 리본 장식의 영국 풍 왕관과 함께 연출되었다. 또 <그림 27>과 같이 원삼과 함께 연출된 깃털장식의 남성 갓이나, <그림 28>과 같이 오색한삼과 함께 연출된 양관 및 베일 장식 등은 해체적 조화의 미를 나타냈다. 또 원삼 위에 뷔스티에를 착용시키거나 다양한 의복 아이템을 믹스 앤 매치하여 레이어드 룩으로 연출시킴으로써 착용방식의 변화를 나타냈으며, <그림 30>과 같이 무동의 부용관은 한글 캘리그래피와 붓 터치의 프린트로 장식된 화이트 톱, 전통 극에 쓰이는 인형과 함께 연출되어 한국적

이미지의 부각 및 하이브리드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표 8>은 ‘뉴 코리아 쿠투르(new Korean couture)’를 콘셉트로 국내 디자이너들이 한복을 해체하고 재해석하여 새로운 룩으로 전개한 화보이다. <그림 31>은 롱 재킷의 네크라인에 한복의 깃을 여러 겹 중첩시켜 디자인 포인트로 연출한 것이고, <그림 32>는 화려한 상드리에와 비즈 장식의 농구 골대를 배경으로 볼레로 타입의 톱, 한복 고쟁이의 형태를 차용한 와이드 팬츠, 하이 힐 등을 통해 현대적 한복의 변용을 나타낸다. 또 <그림 33>은 튜브 톱, 가죽 장식의 팬츠, 롱부츠와 함께 연출된 한복 저고리로 하이브리드 이미지를 강조하였으며, <그림 34>는 한복 저고리의 형태만을 차용하여 비치는 오간자 소재와 스팅글 장식의

<표 7> 스피렌디드 한복 화보 연출

주제	스플렌디드 한복				
이미지					
	<그림 26> 스플렌디드 한복 1 (출처: 『보그』, 2007. 1, p.234)	<그림 27> 스플렌디드 한복 2 (출처: 『보그』, 2007. 1, p.237)	<그림 28> 스플렌디드 한복 3 (출처: 『보그』, 2007. 1, p.238)	<그림 29> 스플렌디드 한복 4 (출처: 『보그』, 2007. 1, p.244)	<그림 30> 스플렌디드 한복 5 (출처: 『보그』, 2007. 1, p.241)
의복 아이템	노의, 적의, 조복의 대대와 후수, 녹초삼, 치마, 스란치마, 대란치마, 대습치마, 오합무지기치마, 단속곳, 오색한삼, 스란 단, 원삼, 철릭, 남자 바지, 남자 저고리, 전대, 포, 중단, 전복, 동다리, 답호, 홍광대, 단령, 화이트 톱, 뷔스티에				
색상	홍색, 남색, 백색, 하늘색, 황색, 청색, 녹색, 흑색, 베이지색, 자색, 연두, 보라, 먹자주색 등				
소재	실크, 모시, 명주, 직금 실크, 모본단, 오간자, 갑사, 기러기 털				
문양 및 기법	연꽃, 목단, 봉황 등 꽃문양과 동물문양, 직금, 금박, 자수, 수목화 이미지의 한글 캘리그래피 프린트				
장식 소품	비즈와 리본 장식의 영국 풍 왕관, 중절모, 하피와 패옥을 가슴에 장식, 공작 깃털 장식의 모자, 버나, 손목에 노리게 장식, 무동의 부용관, 전통 극에 쓰이는 인형, 금칠 장식의 양관, 12발 상모				
헤어	은발 커트, 은발 뺑 스타일의 긴 생머리				
연출 특성	화려한 의복과 달리 맨발로 연출하였고, 정적인 포즈 외에 움직임이 큰 포즈로 역동적 이미지 표현 노의, 철릭, 원삼 등 다양한 한복 아이템을 여미지 않고 걸치거나 스란 단을 팔에 걸쳐 연출하였고, 한복과 뷔스티에, 영국 풍 왕관, 서구적 헤어스타일, 한국적 이미지의 소품 등 믹스 앤 매치에 의한 하이브리드 이미지 연출				
화보 배경	세트 배경 없는 스튜디오				






로 변화된 이미지를 나타냈고, <그림 35>는 어깨가 달린 한복 치마의 형태를 활용한 스커트를 뷔스티에, 레깅스, 롤 업 팬츠 등과 레이어드 룩을 연출하여 믹스 앤 매치에 의한 하이브리드 이미지를 부각시킨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화려한 상들리에와 함께 비즈장식의 농구 골대, 기계체조의 평균대, 투명한 술과 투명비즈로 기계체조의 링 종목 기구를 연출한 스튜디오 세트 배경은 재해석된 한복의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며, 역동적인 모델의 포즈를 통해 생동감 있는 이미지를 나타냈다.

<표 9>는 ‘뉴 이어스 드레싱(new year’s dressing)’을 콘셉트로 한복과 이브닝드레스, 모피를 주 아이템으로 조합한 화보이다. <그림 36>은 모피 솔과 함께 오합무지기치마와 폭 넓은 단속곳으로 풍성한 볼륨감 있는 실루엣을 연출하였고, <그림 37>은 색동 귀마개와 함께 저고리 위에 롱 드레스



를 매치하여 이색적인 이미지를, <그림 38>은 단속곳을 크리스털 비즈 장식의 미니 원피스와 함께 연출하여 드레스와 같은 이미지를 나타냈다. 특히 <그림 39>는 화려한 러플 장식의 이브닝드레스를 오리엔탈풍의 재킷, 두루마기, 버선, 고무신과 함께 연출하였고, <그림 40>은 폭 넓은 다리속곳과 고무신, 토시와 함께 몽골풍의 양털 코트, 베이비 돌 드레스와 함께 매치하여 이질적인 것들의 상호 융합을 통한 하이브리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즉 시·공간과 국적, 문화, 소재, 아이템 등 모든 것이 혼성되고 융합된 다국적 하이브리드의 이미지를 연출함으로써 글로벌리즘의 경향을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표 10>은 ‘더 브라이드 웨어스 한복(the bride wears Hanbok)’을 콘셉트로 한복과 서양복의 아이템 조합을 활용하여 아름다운 신부의 이미지를 연

<표 8> 뉴 코리안 쿠티르 화보 연출

주제	뉴 코리안 쿠티르				
이미지					
	<그림 31> 뉴 코리안 쿠티르 1 (출처: 『보그』, 2007. 8, p.296)	<그림 32> 뉴 코리안 쿠티르 2 (출처: 『보그』, 2007. 8, p.297)	<그림 33> 뉴 코리안 쿠티르 3 (출처: 『보그』, 2007. 8, p.299)	<그림 34> 뉴 코리안 쿠티르 4 (출처: 『보그』, 2007. 8, p.305)	<그림 35> 뉴 코리안 쿠티르 5 (출처: 『보그』, 2007. 8, p.301)
의복 아이템	여자 저고리, 치마, 고쟁이 형태를 본뜬 팬츠, 두루마기 형태의 재킷, 더블버튼 재킷에 밑단을 늘린 원피스, 스커트, 팬츠, 볼레로 타입의 톱, 튜브 톱, 뷔스티에, 볼레로, 패딩 점퍼, 롤 업 팬츠, 레깅스				
색상	블랙, 골드, 레드, 네이비, 그레이, 화이트, 그린				
소재	울, 면, 니트, 데님, 가죽, 패딩, 레이스, 퍼, 오간자, 톨, 에나멜, 반짝이는 소재				
문양 및 기법	꽃, 도트, 추상, 기하학적 문양, 프린트 및 스팅글 장식기법 활용				
장식 소품	네크리스, 뱅글, 하이 힐, 가죽 롱부츠				
헤어	긴 헤어스타일				
연출 특성	재킷 네크라인에 한복의 깃을 여러 겹 중첩시키거나 한복 아이템의 변형, 서양복과 한복의 조합으로 하이브리드 이미지 연출 장식 커튼에 매달리거나 농구의 슈팅 자세 등 움직임이 큰 포즈로 역동적 이미지 연출				
화보 배경	화려한 상들리에, 비즈장식의 농구 골대, 기계체조의 평균대, 투명한 술과 투명비즈로 기계체조의 링 종목 기구를 연출한 스튜디오				

<표 9> 뉴 이어스 드레싱 화보 연출

주제	뉴 이어스 드레싱				
이미지					
	<p><그림 36> 뉴 이어스 드레싱 1 (출처: 『보그』, 2008. 1, p.230)</p>	<p><그림 37> 뉴 이어스 드레싱 2 (출처: 『보그』, 2008. 1, p.231)</p>	<p><그림 38> 뉴 이어스 드레싱 3 (출처: 『보그』, 2008. 1, p.237)</p>	<p><그림 39> 뉴 이어스 드레싱 4 (출처: 『보그』, 2008. 1, p.235)</p>	<p><그림 40> 뉴 이어스 드레싱 5 (출처: 『보그』, 2008. 1, p.239)</p>
의복 아이템	저고리, 직령의, 적삼, 배자, 반비, 액주름 포, 치마, 2겹치마, 오합무지기치마, 단속곳, 다리속곳, 포대 쓰개, 버선, 튜브 롱 드레스, 홀터 드레스, 언밸런스 롱 드레스, 베이비 돌 드레스, 미니드레스, 원피스, 코트, 롱 베스트, 베스트, 오리엔탈 풍 재킷				
색상	자주, 보라, 블루, 연보라, 그레이, 연분홍, 베이지, 블랙, 그린, 아이보리, 핑크, 녹색, 파랑, 색동, 먹색, 백색, 청록색, 밤색, 쪽색, 연한 살구색, 먹색, 홍색, 소색, 남색 등				
소재	항라, 실크, 산통 실크, 생명주, 명주, 레이스, 울, 석류사, 광목, 깃털, 양털, 여우털, 밍크, 토끼털, 타조털				
문양 및 기법	도류불수단, 운문, 플리츠, 누빔, 그라데이션 염색기법 및 크리스탈 비즈, 리본 장식				
장식 소품	합죽신, 귀마개, 숄, 머플러, 토시, 검정 고무신, 흰색 고무신, 갓신, 무명 갓신,				
헤어	높게 세워 묶고 삼베로 만든 리본, 구슬, 끈, 오색뿔꽃이로 장식한 헤어스타일				
연출 특성	다양한 한복과 서양복 아이템의 조합 및 레이어드 룩 연출 화려한 의상과 대비되는 맨발에 고무신 착용 및 한복 속옷 아이템의 겹옷화 연출 등 고정관념을 탈피한 하이브리드 이미지 연출				
화보 배경	구겨진 원단을 내려뜨린 스튜디오				

출한 화보이다. 화이트를 기본으로 전개된 화보는 솜을 소재로 민들레 홀씨를 형상화한 설치작가 노동식의 작품과 함께 우아한 신부의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며, 전통 혼례에 사용되던 기러기를 소품으로 설치하여 화보의 콘셉트를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41>은 연한 핑크색상의 스트라이프 문양 저고리와 드레스, 크리스털로 장식된 족두리와 베일이 함께 배치되었고, <그림 42>는 노방 소재의 저고리, 진주와 망사가 서로 니팅 된 드레스, 리본 장식의 헤어피스로, <그림 43>은 한복 치마와 스탠드칼라로 변형된 저고리, 베일 등이 서로 배치되어 동, 서양이 혼합된 독특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또 <그림 44>와 같이 포의 형태이지만 소매부분에 리본디테일을 가미하거나 티아라를 착용시킨 기러기 박제를 헤어피스로 착용하는 등 디






테일적인 변화와 새로운 스타일링을 통해 서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냈고, <그림 45>는 다양한 한복과 서양복식의 아이템 조합을 신부를 상징하는 화이트 색상을 중심으로 스타일하여 이질적이지 않은 조화로움과 우아함을 부각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복과 서양복의 혼합을 통한 하이브리드 드레스의 연출은 혼례용 신부 의상에 대한 새로운 스타일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표 11>은 ‘드레싱 인 한복(dressing in Hanbok)’을 콘셉트로 한복 스타일링에 대한 새로운 재발견을 제시한 화보이다. <그림 46>부터 <그림 50>에서 볼 수 있듯이 치마와 저고리는 남성 한복에 사용된 세조대를 벨트처럼 활용하여 풍성한 실루엣이 아닌 허리라인을 강조하고 다양한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였고, 토시 대신 니트

<표 10> 더 브라이드 웨어스 한복 화보 연출

주제	더 브라이드 웨어스 한복				
이미지					
	<그림 41> 더 브라이드 웨어스 한복 1 (출처: 『보그』, 2008. 5, p.454)	<그림 42> 더 브라이드 웨어스 한복 2 (출처: 『보그』, 2008. 5, p.455)	<그림 43> 더 브라이드 웨어스 한복 3 (출처: 『보그』, 2008. 5, p.458)	<그림 44> 더 브라이드 웨어스 한복 4 (출처: 『보그』, 2008. 5, p.460)	<그림 45> 더 브라이드 웨어스 한복 5 (출처: 『보그』, 2008. 5, p.461)
의복 아이템	저고리, 홀저고리, 치마, 홀치마, 쾌자, 포, 드레스, 원피스, 베일				
색상	하늘색, 연핑크, 연쪽빛, 화이트				
소재	실크 모시, 박 명주, 모본단, 실크, 명주, 레이스, 새틴, 망사, 노방, 깃털, 진주				
문양 및 기법	스트라이프, 꽃문양, 자수, 러플, 프릴기법의 활용, 진주와 망사의 니팅기법				
장식 소품	기러기 박제, 벨트, 모자, 헤어피스, 티아라, 족두리				
헤어	뱅 스타일의 앞머리와 하나로 묶어 연출한 헤어스타일				
연출 특성	한복 아이템과 드레스, 원피스의 조합 및 화이트와 파스텔 톤을 중심으로 우아한 신부이미지 연출 기러기 박제를 헤어피스로 활용하거나 진주, 깃털, 크리스털 장식으로 화려한 이미지 연출				
화보 배경	숨을 소재로 한 설치작품 배경의 스튜디오				

<표 11> 드레싱 인 한복 화보 연출

주제	드레싱 인 한복				
이미지					
	<그림 46> 드레싱 인 한복 1 (출처: 『보그』, 2009. 1, p.184)	<그림 47> 드레싱 인 한복 2 (출처: 『보그』, 2009. 1, p.191)	<그림 48> 드레싱 인 한복 3 (출처: 『보그』, 2009. 1, p.192)	<그림 49> 드레싱 인 한복 4 (출처: 『보그』, 2009. 1, p.194)	<그림 50> 드레싱 인 한복 5 (출처: 『보그』, 2009. 1, p.195)
의복 아이템	저고리, 삼회장저고리, 색동저고리, 누비저고리, 치마, 2겹치마, 3겹치마, 단속곳, 배자, 베스트, 볼레로				
색상	청보라, 보라, 연두, 주황, 노랑, 그레이, 핑크, 레드, 베이지, 브라운, 자주, 블랙, 초록, 연수박색, 짙은 수박색, 백색, 먹색, 홍색, 겨자색, 남색, 갈색, 홍화색, 살구색				
소재	명주, 생 옥사, 숙고사, 생초 견, 양단, 모본단, 숨 누비, 레이스, 밉크, 양털, 여우털, 몽골리안 램, 니트				
문양 및 기법	도류불수단, 모란, 연꽃, 당초 등의 꽃문양, 누비, 금박기법				
장식소품	세조대, 털실 방울, 엔터크 목걸이, 귀걸이, 팔찌, 반지, 암 워머, 레그 워머, 머플러, 털신, 플랫슈즈, 꽃신				
헤어	뱅 스타일의 앞머리 연출 및 높게 묶어 다양한 색상의 공 모양 털실 방울로 장식한 헤어스타일				
연출 특성	한복과 다양한 베스트, 니트 워머, 숄 장식과의 조화 및 가부키 메이크업으로 하이브리드 이미지 연출 남자 한복의 포에 매던 세조대를 벨트처럼 활용해 다양한 실루엣 연출				
화보 배경	세트 배경 없는 스튜디오				

<표 12> 매화여설설여매 화보 연출

주제	매화여설설여매				
이미지					
	<그림 51> 매화여설설여매 1 (출처: 『하퍼스 바자』, 2010. 1, p.132)	<그림 52> 매화여설설여매 2 (출처: 『하퍼스 바자』, 2010. 1, p.137)	<그림 53> 매화여설설여매 3 (출처: 『하퍼스 바자』, 2010. 1, p.134)	<그림 54> 매화여설설여매 4 (출처: 『하퍼스 바자』, 2010. 1, p.133)	<그림 55> 매화여설설여매 5 (출처: 『하퍼스 바자』, 2010. 1, p.141)
의복 아이템	저고리, 치마, 홀치마, 거들 치마, 무지기 치마, 반령 누비 반비, 누비 장옷, 모피 트리밍의 장옷, 버선, 갓신, 두루마기, 마고자, 패딩점퍼, 볼레로				
색상	블랙, 실버, 자주, 연보라, 청보라, 핑크, 그레이, 소색, 녹색, 남색, 청색, 먹색, 홍색, 남회색, 물색 등				
소재	생고사, 석류사, 모본단, 명주, 실크 은조사, 자미사 실크, 양단, 데님, 면 망사, 여우털, 패딩, 벨벳, 털				
문양 및 기법	모란문, 운문, 도류불수단, 길상문양, 자수, 수목화 느낌의 프린트, 모피나 털 트리밍 활용				
장식소품	토시, 족두리, 산호, 옥, 밀아, 나비장식 된 대 삼작 노리개, 쌍가락지, 뺑글, 에스닉한 이미지의 매듭목걸이, 크리스털과 라인스톤 장식의 목걸이, 진주와 리본장식 목걸이, 니 삭스, 하이 힐, 가죽 스트랩 슈즈, 부츠				
헤어	둥글고 높게 부풀린 과장된 헤어스타일, 옥 떨잠 꽃이, 구름 모티프의 뒤꽂이, 뺨치 땀기, 족두리, 색동조각보 등을 헤어 장식 연출에 활용				
연출 특성	한복과 서양복 아이템의 조화 및 과장된 헤어스타일로 하이브리드 이미지 연출				
화보 배경	눈이 쌓인 것과 같은 바닥 연출과 매화나무 배경의 스튜디오				

소재의 암 위머나 레그 위머를 활용하여 현대적이면서도 캐주얼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특히 각종 털을 이용한 베스트와 머플러는 계절감을 나타냈으며, 가부키 메이크업과 헤어에 연출된 원색의 방울 술 장식은 한복과 함께 조합되어 이질적 다문화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스타일을 제시하였다.

<표 12>는 서거정의 시구 구절인 ‘매화여설설여매(梅花如雪雪如梅)’을 콘셉트로 매화가 지닌 귀부인의 절개와 매혹적인 이미지를 표현한 화보이다. 서거정 외에도 매화를 주제로 한 황진이, 이규보, 왕안석 등의 시 구절의 인용 및 눈이 쌓인 것과 같은 바닥과 매화나무를 배경으로 콘셉트를 부각시켰다. 특히 <그림 51>부터 <그림 55>에서 볼 수 있듯이 과장된 헤어스타일의 연출로 이국적 이미지를 나타냈으며, 브로치를 머리꽂이로 활용하거나, 패딩점퍼나 볼레로, 하이 힐, 부츠 등 서양복식의 아이템과의 조합으로 독특한 이미지를 연출

하였다. 또 <그림 51>과 같이 러플장식을 것으로 변형한 한복 저고리 위에 화려한 비즈로 치마말기를 장식한 치마를 착용하여 착용방식의 해체를 나타냈으며, <그림 54>와 같이 수목화 느낌의 프린트와 전체적인 실루엣만을 부각시켜 신비스러움을 나타내기도 하였고, <그림 55>와 같이 끈 장식으로 추상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볼레로, 하이 힐, 트임이 있는 살창 치마의 독특한 조합으로 모던한 이미지의 스타일링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표 13>은 ‘썸 플라워 인 스노우(some flower in snow)’를 콘셉트로 설날 나들이 길에 핀 꽃의 이미지를 한복의 아름다움으로 표현한 화보로 살내 스튜디오가 아닌 눈 덮인 설원을 배경으로 전개되어 계절감을 부각시켰다. 파스텔 톤의 펠트 소재로 과장된 가चे머리를 연출하여 독특한 이미지를 연출하였으며, <그림 56>과 <그림 57>에서 볼 수 있듯이 한복 아이템은 레이스 소재의 드레스나 원피

<표 13> 씬 플라워 인 스노우 화보 연출

주제	씬 플라워 인 스노우				
이미지					
	<그림 56> 씬 플라워 인 스노우 1 (출처: 『보그』, 2010. 2, p.321)	<그림 57> 씬 플라워 인 스노우 2 (출처: 『보그』, 2010. 2, p.322)	<그림 58> 씬 플라워 인 스노우 3 (출처: 『보그』, 2010. 2, p.332)	<그림 59> 씬 플라워 인 스노우 4 (출처: 『보그』, 2010. 2, p.331)	<그림 60> 씬 플라워 인 스노우 5 (출처: 『보그』, 2010. 2, p.335)
의복 아이템	저고리, 누비저고리, 치마, 배자, 치적의, 두루마기, 단속곳, 버선 드레스, 조끼, 카디건				
색상	민트, 연보라, 연두, 노랑, 화이트, 그레이, 핑크, 하늘색, 다홍색, 소색				
소재	명주, 모본단, 실크, 망사, 레이스, 벨벳, 니트, 밉크, 여우털, 양털				
문양 및 기법	꽃문양, 운문, 봉황문양, 은사 자수, 누비기법				
장식소품	진주목걸이, 프린지 장식의 네크리스, 모자, 스카프, 베일, 머프, 머플러, 토시, 꽃신				
헤어	펠트소재로 된 가चे머리와 나비, 코사지, 리본 등 다양한 장식 연출				
연출 특성	한복과 서양복 아이템의 조화 및 레이어드 룩 연출 펠트소재로 과장된 헤어 연출 및 한복 속옷을 겹옷으로 연출하여 착장방식의 해체를 표현				
화보 배경	눈 덮인 실원 배경의 야외				

스와 함께 매치되어 여성스러우면서도 우아한 이미지를 나타냈다. 또 <그림 58>의 단속곳은 속옷이 아닌 겹옷으로서 팬츠와 같이 연출되었고, <그림 59>와 <그림 60> 같이 다양한 한복과 서양복의 아이템 조화, 그리고 펠트 소재의 헤어 연출 위에 털모자의 중첩, 코사지 장식, 네크리스 등의 조합은 다국적 하이브리드 이미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표 14>는 신묘년을 맞이하여 ‘해피 바니 걸(happy bunny girl)’의 콘셉트로 전개된 화보이다. 콘셉트 설정에 따라 살아있는 토끼 및 토끼를 주제로 한 전승공예가 이기원의 전통 지화 장식 및 작품이 활용되었다. 또한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깃털로 된 토끼 귀모양의 헤어밴드가 활용되었고 화려한 멀티 컬러의 조합으로 생동감 있는 이미지를 나타냈다. <그림 61>은 상의에는 저고리 위에 화려한 자수 장식의 카디건을, 하의에는 패딩스커트 위에 한복 치마를 착용하여 상반된 착장

방식으로 독특한 실루엣을 연출하였고, <그림 62> 역시 저고리와 시스루 톱, 볼륨감 있는 스커트의 조합으로 독특한 실루엣을 연출한 것이다. 특히 <그림 63>은 강렬한 컬러감으로 배색된 스트라이프 원피스 안에 한복치마를 착용하였고 버선과 플랫폼 슈즈의 조합으로 하이브리드 이미지를 나타냈으며, <그림 64>와 같이 아이템의 조합과 함께 색상을 중심으로 스타일링하거나, <그림 65>와 같이 모피 트리밍의 가죽바지를 치마 안에 착용하여 단속곳과 같이 연출하는 등 고정관념을 탈피한 착장방식을 통해 한복의 이미지를 새롭게 변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표 15>는 ‘단오펝경’을 콘셉트로 한 화보로 설날이나 추석 등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살린 화보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만개한 벚꽃과 계곡 등 봄의 정경을 느낄 수 있는 야외에서 전개되었고, 전통 한국 여인의 미인상을 연상시킬 수 있는 메이 크업과 헤어로 화보의 콘셉트를 부각시켰다. <그

<표 14> 해피 바니 걸 화보 연출

주제	해피 바니 걸				
이미지					
	<그림 61> 해피 바니 걸 1 (출처: 『보그』, 2011. 2, p.295)	<그림 62> 해피 바니 걸 2 (출처: 『보그』, 2011. 2, p.297)	<그림 63> 해피 바니 걸 3 (출처: 『보그』, 2011. 2, p.301)	<그림 64> 해피 바니 걸 4 (출처: 『보그』, 2011. 2, p.302)	<그림 65> 해피 바니 걸 5 (출처: 『보그』, 2011. 2, p.303)
의복 아이템	저고리, 치마, 무지기치마, 속바지, 배자, 버선, 셔츠, 카디건, 원피스, 코트, 풀 스커트, 패딩 미니스커트, 가죽 바지, 시스루 톱				
색상	핑크, 노랑, 보라, 네이비, 먹색, 연두, 화이트, 주황, 브라운, 청보라, 블랙, 초록, 파랑, 오렌지, 골드 등 비비드 톤의 멀티컬러				
소재	명주, 모피, 실크, 실크 노방, 니트, 패딩, 모피, 삼베, 인조 모피, 울, 양털, 몽골리안 양털, 가죽				
문양 및 기법	꽃, 도트, 스트라이프 문양, 누빔, 프린트, 캐릭터 자수기법, 스팅글 및 털 트리밍 기법 활용				
장식소품	토시, 세조대, 볼 모터브의 귀걸이, 벨트, 머플러, 레그 워머, 힐, 플랫폼 슈즈, 스트랩 슈즈, 전승공예가 이기원의 전통 지화 장식 작품, 방패연, 탁자, 토끼				
헤어	쪽머리에 화려한 꽃 장식 및 토끼 귀 모양의 깃털 소재 헤어밴드로 장식				
연출 특성	한복과 서양복 아이템의 조화 및 레이어드 룩 연출, 버선에 하이힐이나 스트랩 샌들의 믹스로 하이브리드 이미지 연출 무지기치마나 속바지 등 한복 속옷 아이템을 걸옷화하여 연출 방패연이나 전통 지화 작품과 같은 소품으로 한국적 이미지 연출				
화보 배경	세트 배경 없는 스튜디오				


림 66>은 산뜻한 컬러감의 한복 위에 화려한 꽃무늬 프린트의 니헨스스커트나 네크리스를 함께 연출하였고, <그림 67>은 저고리에 와이드 팬츠와 페플럼 장식을 통해 독특한 실루엣 연출은 물론 댕기에 장식한 노리개, 소품으로 활용한 가야금으로 한국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또 <그림 68>부터 <그림 70>에서 볼 수 있듯이 치마, 저고리와 함께 연출된 재킷, 러플장식의 원피스, 드레스 모두 화려한 컬러감과 함께 한국적 이미지와 조합되어 하이브리드 이미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표 16>은 ‘우먼 인 블러섬(woman in blossom)’을 콘셉트로 한복의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서양복식의 코르셋이나 뷔스티에와 같이 여성성을 부각

시킬 수 있는 아이템과의 조합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한 봄이라는 계절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화려한 벚꽃을 스튜디오 바닥에 연출하였고 헤어장식에 활용하였다. 특히 <그림 71>부터 <그림 75>에서 볼 수 있듯이 뷔스티에나 코르셋과의 조합을 통해 한복의 여유로움과 풍성한 실루엣보다는 여성의 인체를 강조하는 실루엣을 표현하였고, 속속곳이나 무지기 치마 등 한복의 속옷 아이템으로 그대로 노출시켜 관능적인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스타일 제시는 사진의 노출시간을 활용한 몽환적 분위기의 화보로 콘셉트를 부각시켰으며 환상적인 이미지까지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표 17>은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을 작품의 소

<표 15> 단오풍경 화보 연출

주제	단오풍경				
이미지					
	<그림 66> 단오풍경 1 (출처: 『보그』, 2011. 5, p.397)	<그림 67> 단오풍경 2 (출처: 『보그』, 2011. 2, p.400)	<그림 68> 단오풍경 3 (출처: 『보그』, 2011. 2, p.402)	<그림 69> 단오풍경 4 (출처: 『보그』, 2011. 2, p.405)	<그림 70> 단오풍경 5 (출처: 『보그』, 2011. 2, p.407)
의복 아이템	저고리, 치마, 2겹치마, 5겹치마, 무지기치마, 말군, 속바지, 단속곳, 톱, 미니 튜브 드레스, 원피스, 스커트, 플리츠스커트, 와이드 팬츠, 페플럼, 볼레로, 재킷				
색상	레드, 연두, 화이트, 보라, 연두, 파랑, 블랙, 노랑, 형광 핑크, 자주, 초록, 연핑크, 진달래색, 먹색, 소색				
소재	실크, 명주, 삼베, 울, 면, 레이스, 노방, 시폰, 오간자				
문양 및 기법	장미, 나뭇잎 등 꽃문양, 누빔, 프린트, 자수, 워빙 기법 및 페플럼, 러플, 프릴 장식 활용				
장식소품	지우산, 차 바구니, 원형 소쿠리, 선물보자기, 가야금, 보석함세트, 크리스털 및 체인 장식 네크리스, 각종 브로치, 가죽벨트, 버선, 꽃신, 고무신				
헤어	가체머리, 쪽머리, 굵은 두 가닥의 땀머리 스타일 및 다양한 꽃이 및 꽃, 진주, 끈, 노리개 장식, 헤어에 비너를 꽃이로 연출				
연출 특성	한복과 서양복의 조화와 레이어드 룩 연출 화려한 액세서리와 한국적 이미지의 소품 조합을 활용 치마를 머리에 둘러 연출하거나 벨트를 가슴 위로 둘러매 연출				
화보 배경	매화나무와 계곡 배경의 야외				

재로 삼아 현재와 소통하는 10인의 국내 아티스트와 협업한 화보로 ‘패션 인투 아트(fashion into art)’를 콘셉트로 한 것이다. 현대 패션이 예술과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하나의 예술작품으로까지 표현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 한복과 국내 아티스트와의 협업에 의한 작업 역시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글로벌리즘의 경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림 76>은 모시 치마, 저고리 위에 벨트 장식의 풀 스커트와 칭키 힐(chunky heel)로 연출된 것이다. 동양화 물감을 이용해 새들과 나무상자를 아파르트처럼 그려 놓은 정해운의 작품을 배경으로 하였고, 예술작품과 모델은 가는 실로 연결되어 모델 역시 작품 속 하나의 오브제로 표현되었다. <그림 77>은 가는 철사를 활용해 한옥 지붕을 형상화한 백승호의 작품이 마치 모자와 같이 연출된

것으로 블랙과 그레이 색상의 치마, 저고리와 함께 플랫폼 힐로 모던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그림 78>은 치마 밑자락과 버선, 하이힐의 조합만을 부각시킨 화보로 한국화 화가 신선미의 작품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전개한 것이다. <그림 79>는 서은애 작가의 매화문양벽지를 배경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벽지 위의 하얀 캔버스 앞에 놓인 모델은 작가의 매화문양 지화 장식을 머리에 연출하여 예술작품을 착용함은 물론 캔버스 위의 또 다른 예술작품으로 존재한다. <그림 80> 역시 모시에 수묵담채와 라인 테이프로 현대판 진경산수를 표현한 김보민 작가의 작품을 배경으로 연출된 화보이다. 멀티 프린트의 셔츠와 조합된 모시치마는 드레스와 같은 형태로 변형되었고, 속곳, 버선, 칭키힐 등과 함께 조합되어 전통과 현대가 조합된 이

<표 16> 우먼 인 블러섬 화보 연출

주제	우먼 인 블러섬				
이미지					
	<그림 71> 우먼 인 블러섬 1 (출처: 『보그』, 2012. 5, p.430)	<그림 72> 우먼 인 블러섬 2 (출처: 『보그』, 2012. 5, p.431)	<그림 73> 우먼 인 블러섬 3 (출처: 『보그』, 2012. 5, p.435)	<그림 74> 우먼 인 블러섬 4 (출처: 『보그』, 2012. 5, p.436)	<그림 75> 우먼 인 블러섬 5 (출처: 『보그』, 2012. 5, p.439)
의복 아이템	저고리, 치마, 무지기치마, 당의, 속속곳, 속바지, 버선, 코르셋, 시스루 셔츠, 뷔스티에				
색상	민트, 분홍, 베이지, 연분홍, 노랑, 화이트, 주황, 하늘색				
소재	실크 본건 갑사, 삼베, 면, 비치는 소재, 레이스				
문양 및 기법	절레 꽃, 테이지 꽃, 목단, 나비문양, 자수, 프린트, 그라데이션 기법의 염색 및 핀턱장식 활용				
장식소품	지우산, 꽃잎				
헤어	풍 헤어스타일 연출 및 꽃 장식				
연출 특성	한복 아이템과 코르셋, 뷔스티에 등 서양복 아이템의 조합으로 하이브리드 이미지 연출 흐릿한 화보 화면으로 몽환적 분위기 연출				
화보 배경	바닥에 꽃잎 연출한 스튜디오				

<표 17> 패션 인투 아트 화보 연출

주제	패션 인투 아트				
이미지					
	<그림 76> 패션 인투 아트 1 (출처: 『보그』, 2012, 8, p.411)	<그림 77> 패션 인투 아트 2 (출처: 『보그』, 2012, 8, p.413)	<그림 78> 패션 인투 아트 3 (출처: 『보그』, 2012, 8, p.418)	<그림 79> 패션 인투 아트 4 (출처: 『보그』, 2012, 8, p.420)	<그림 80> 패션 인투 아트 5 (출처: 『보그』, 2012, 8, p.421)
의복 아이템	저고리, 홀저고리, 대금형 상의, 치마, 단속곳, 속속곳, 속곳, 버선, 반팔셔츠, 셔츠, 케이프 원피스, 재킷, 시스루 드레스, 스커트, 풀 스커트, 와이드 팬츠				
색상	연 분홍, 연 하늘, 흑 다홍, 노랑, 남파랑, 초록, 파랑, 보라, 브라운, 카키, 그레이, 화이트, 아이보리, 블랙, 레드, 물색, 먹색, 소색				
소재	모시, 양단, 옥사, 모본단, 생초, 삼베, 속고사, 실크, 시폰, 울, 모피, 니트, 망사, 면, 레이스, 가죽, 인조털				
문양 및 기법	매화, 모란, 국화 등 꽃문양, 스트라이프 문양, 프린트, 자수, 콜라주, 플리크, 셔링, 조각보기법 활용				
장식소품	십자가 모티브 헤어밴드, 테이블, 새 인형, 나무상자, 옷핀 브로치장식, 갓, 선글라스, 링, 커다란 구슬목걸이, 머플러, 오픈 토 플랫폼 힐, 스트랩 플랫폼 힐, 청키 힐				
헤어	하나로 묶거나 업스타일의 헤어 연출				
연출 특성	한복 아이템과 서양복 아이템의 조합 및 작장방식의 해체로 하이브리드 이미지 연출 예술작품을 모자나 헤어장식과 같은 패션소품으로 연출하거나 그래픽 작업을 통해 스토리텔링 시킴 한복과 한국적 이미지의 예술작품과의 조합에 의한 예술적 감성 연출				
화보 배경	한국화나 한국적인 이미지를 주제로 작업을 전개하는 아티스트 10인의 작품을 배경으로 한 스튜디오				

미지 연출은 물론 화보 속 배경인 예술 작품과 동화되어 하나의 예술작품과 같이 표현되었다. 즉 한복과 한국화, 한국적인 소재의 작품들을 주제로 전개된 화보이지만 다양한 서양복의 아이템과의 조합, 해체적 착장방식을 통해 하이브리드적인 이미지는 물론 한복의 예술적 감성까지도 표현한 화보라 할 수 있다.

2. 국내 라이선스 패션 잡지 화보에 나타난 글로벌리즘 연출 경향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세계화 시대인 오늘날 지역성은 문화를 상징하는 파워이자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한 세계화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즉 지역 특유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 전략으로서의 글로벌리즘은 넓게는 국가적 차원에서 좁게는 소지방에 이르기까지, 또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전략적 수단으로 작용함은 물론 패션의 영역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2012 F/W 뉴욕 패션 위크에 참가한 한국디자이너들 역시 저마다 전통적 요소를 가미한 의상으로 세계의 주목을 이끈바 있다. 이상봉은 전통 돌담에서, 박춘무는 한복 저고리 동정에서, 손정완은 한복 자수에서 영감을 받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였다. 세계 무대에 참가하는 디자이너들이 각 출신 국가의 전통문화나 복식에서 디자인을 응용했을 때 자칫 민속의상으로 보일 수 있는 단점을 지니고 있지만, 전통적 요소를 반영하면서도 현 시대의 트렌드와 부합됨으로써 참신함과 독창성을 살릴 수 있으며, 이것이 곧 전통복식의 세계화를 이룩할 수 있는 글로벌리즘의 방안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세계무대에서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글로벌리즘 패션을 전개하고 있는 많은 국내 디자이너들의 노력이 강구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라이선스 패션 잡지에 나타난 화보의 연출 역시 다양한 글로벌리즘의 경향을 나타

냈다. 국내 패션 잡지 화보에 나타난 글로벌리즘을 분석한 결과 그 연출 경향은 자국 모델의 기용, 한복과 전통 장식소품 활용에 의한 한국적 이미지 강조, 한복과 서양 복식의 혼합 및 착장방식의 해체에 의한 하이브리드 이미지 표현, 한복과 국내 아티스트의 협업에 의한 전통 복식의 예술화 표현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 국내 라이선스 패션 잡지의 특성을 반영함에 따라 모델 역시 국내 패션모델을 주로 기용하여 한국 여성의 미를 부각시킴은 물론 글로벌리즘의 경향을 반영하였다. 이는 잡지를 구독하는 국내 독자에게 친밀감을 부여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하게 되며, 반대로 국외 독자에게 있어서는 이국적인 이미지 전달은 물론 한국 고유의 정서를 전달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모델을 통해 표현되는 한국적 용모의 이미지,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등 한국적 아름다움에 대한 다양한 정서를 표현하였으며, 실외에서 전개된 화보의 배경에 표현된 아름다운 국내 경치 또한 한국적 특성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화보의 주제를 강조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한복과 전통 장식소품 활용에 의한 한국적 이미지 강조로 글로벌리즘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한복은 우리 복식문화를 대표하는 고유의 산물이다. 즉 한복과 전통 장식 소품을 활용한 화보는 타 국가와 차별화되는 하나의 전략이며 문화적 정체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한국 고유의 명절이나 절기를 콘셉트로 진행함에 있어 계절감을 부각시킨 소재 연출로 제시된 한복은 특유의 아름다움을 나타냈고, 한복 아이템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천연염색에 의한 자연스러운 컬러감 연출, 한복의 디테일적인 측면을 부각시킨 것, 전통 장식소품을 활용하는 등 한국적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독창적이면서도 차별화된 글로벌리즘의 특성을 반영한 화보로 연출되었다. 그러나 스타일링에 있어

한복의 착장방식을 그대로 연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녀 한복의 자유로운 교체 연출, 소재나 문양의 현대적 변용, 한복 속옷 아이템의 노출, 다양한 한복 아이템을 활용한 레이어드 룩 연출을 통해 변화된 이미지를 나타냈고, 한복이 지닌 특유의 곡선미와 비정형의 아름다움을 연출하였다. 즉 한복이 지닌 전통적 아름다움과 새로운 시각에 의한 스타일링의 조화로 글로벌리즘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셋째, 한복과 서양 복식의 혼합 및 착장방식의 해체에 의한 하이브리드 이미지 표현으로 글로벌리즘의 특성을 나타냈다. 다문화시대인 오늘날 패션에 있어서의 하이브리드는 동양과 서양, 남성과 여성, 전통과 현대, 주류와 비주류문화 등 다양한 요소와 계층 간의 이해를 막론하고 이질적인 것들의 공존과 융합을 통해 표현되고 있으며, 이 시대를 관통하는 트렌드라 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이나 뉴미디어의 발달 등 첨단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은 전 세계를 하나의 다문화적인 공동체로 집약시키고 있는 가운데 패션에서의 하이브리드 현상은 보다 폭 넓은 해석과 수용으로 전개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패션스타일의 제시를 하나의 지면 위에 표현하는 화보의 경우 다양한 아이템과 소품들로 콘셉트를 부각시킬 수 있으며 독특한 개성을 표현하게 된다. 즉 한복의 아이템들은 남녀복식, 일상복과 예복, 관복, 속옷에 이르기까지 서양복식이나 패션 소품과 함께 서로 믹스 앤 매치 되어 다국적 하이브리드 이미지를 나타냈으며, 또 성별, 계층, 속옷과 겉옷의 관념을 탈피한 착장방식의 해체를 통해 하이브리드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이는 한국적 이미지의 강조인 동시에 지역적 경계를 초월한 글로벌화, 즉 글로벌리즘의 반영으로 전통 복식의 새로운 이미지 창조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이러한 새로운 스타일 제시는 패션전문가들에 의해 새롭게 재해석된 것으로 국내 외의 패션추종자 및 일반 독자들에게 전통 복식과 장신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할 수 있다.

넷째, 한복과 국내 아티스트의 협업에 의한 예술화 표현으로 이는 글로벌리즘의 경향을 반영함과 동시에 우리의 복식문화를 현대적 예술작품의 하나로 승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패션디자이너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국내 아티스트들 역시 작품 전개에 있어 장르의 초월 및 융합을 통해 작품을 전개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이를 세계화시키고 있다. 바람의 옷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영희, 한글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이상봉, 한국적인 정서를 담은 작품으로 오트쿠튀르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는 이진운 등 패션디자이너를 비롯하여, 기소르망이 한국 글로벌 문명의 선구자로 지목한 아티스트 전수천과 백남준²⁹⁾ 등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우리 전통문화를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승화시켜 전개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예술양식과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통해 패션의 예술화가 전개되고 있는 오늘날 다양한 서양복식과의 조합 및 착장방식의 해체를 통해 연출되는 전통 한복과 한국적 정서를 기반으로 한 아티스트들의 협업에 의한 화보 전개는 전통 복식에 대한 새로운 스타일 제시는 물론 한복에 또 다른 예술적 감성을 부여하여 현대 예술작품과 같은 이미지를 나타냈다. 이는 하이브리드라는 트렌드를 반영한 패션의 연출이자 전통 복식과 아트의 융합이며, 또 한국적 정서를 반영한 예술작품의 글로벌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IV. 결론

각 나라와 민족의 문화에 대한 수용과 인정이 정착되어가고 있는 다문화 시대인 오늘날 세계문화의 자국화와 자국문화의 세계화라는 요구는 동시에 발생되어 글로벌리즘의 경향을 이끌고 있다. 우리 전통 복식문화의 대표적인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한복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물론 글로벌리즘을 부각시킬 수 있는 도구이며,

라이선스 패션 잡지의 화보 역시 글로벌리즘을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라이선스 패션 잡지 화보에 나타난 글로벌리즘 경향을 고찰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화보의 주제는 총 16개의 주제로 나타났으며, 주요 명절이나 절기, 결혼시즌을 중심으로 전개된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한복을 주요 아이টে으로 전개하여 글로벌리즘을 반영한 화보로써 새해를 시작하는 신년호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2개월 중 패션컬렉션이 개최되는 3월과 7월, 그리고 마지막 호인 12월호에는 전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잡지사의 편집방향에 따른 것이지만 패션트렌드의 반영 및 우리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라이선스 잡지의 특성이라 사료되며 각 화보의 콘셉트에 따라 한복의 아름다움을 부각시키거나, 서양복과의 조합을 통해 한복의 새로운 스타일을 제시하였다. 화보의 배경은 주로 실내 스튜디오를 배경으로 전개되었으나 한국적 이미지의 소품이나 한국 아티스트들의 작품들을 통해 한국적 정서를 부각시켰고, 야외 배경인 경우 계절감을 강조하거나 아름다운 국내 경치 배경을 통해 지역적 특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화보에 나타난 사진의 형태는 모델의 전신이 나온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은유적인 이미지 표현보다는 한복을 주요 아이টে으로 전개함에 따라 머리장식에서부터 슈즈에 이르기까지 토탈코디네이션에 의한 스타일링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라 사료된다. 화보에 나타난 의복 아이টে은 한복의 각종 아이টে과 전통 소품, 서양복식의 각종 아이টে과 장식소품, 액세서리 등이 활용되었고, 한복과 전통 소품만을 가지고 전개된 경우와 한복과 서양복식의 아이টে 조합으로 전개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었다.

분석에 사용된 총 16개의 주제를 화보의 구성 요소에 준하여 아이টে, 소재, 색상, 문양과 장식소

품, 화보 배경 등으로 분류하여 고찰한 결과 라이선스 패션 잡지에 나타난 글로벌리즘의 연출 경향은 자국 모델의 기용, 한복과 전통 장식소품 활용에 의한 한국적 이미지 강조, 한복과 서양 복식의 혼합 및 착장방식의 해체에 의한 하이브리드 이미지 표현, 한복과 국내 아티스트의 협업에 의한 전통 복식의 예술화 표현으로 도출되었다. 첫째, 이상적인 미의 기준을 서구모델에 한정하던 것에서 벗어나 다국적 패션모델이 지면을 장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패션모델을 통한 화보연출로 지역적 특성을 부각시켰다. 둘째, 한국 고유의 명절이나 절기를 콘셉트로 전개하여 한국적 특징을 부각시켰고, 특히 주제와 부합되는 의복 아이টে으로서 한복은 전통 장식소품, 메이크업과 헤어와 함께 특유의 곡선미와 비정형의 아름다움을 연출하였으며 새로운 시각에 의한 스타일링의 조화로 글로벌리즘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셋째, 한복과 서양 복식의 혼합 및 착장방식의 해체에 의한 하이브리드 이미지 표현으로 전통 복식의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였고 지역적 경계를 초월한 글로벌리즘을 반영하였다. 넷째, 국내 아티스트와의 협업에 의한 예술화 표현으로 이는 글로벌리즘의 경향을 반영함과 동시에 전통 복식과 아트의 융합으로서 우리의 복식문화를 현대적 예술작품의 하나로 승화시켰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글로벌리즘의 경향은 현대 패션에서 자국의 정체성을 반영하면서도 세계화로 발전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 적극적인 전개가 시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라이선스 패션 잡지를 통해 전개되는 이러한 스타일 제시는 대중들에게 우리 전통 복식과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고,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가 한정된 기간과 잡지 화보라는 지면에 국한된 분석으로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을 밝히며, 앞으로 세계 패션 잡지의 화보에

서도 우리 전통 복식이 주요 아이টে으로 등장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김은지 (2010). 글로벌화(globalization)의 관점에서 본 라이선스 패션 잡지: 보그 코리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
- 2) 김선영 (2007). 국내 패션 잡지의 표지디자인에 나타난 패션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1(11), pp.1586-7597.
- 3) 김순영 (2000). 국내 라이선스 패션 잡지의 지면구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73.
- 4) 노혜은 (2004). 국내 라이선스 패션 잡지의 기사내용에 관한 비교 연구: 마리끌레르, 바자, 보그, 엘르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82.
- 5) 오영희 (1984). 패션 잡지의 변천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130.
- 6) 윤을요, 김일 (1998). 국내 라이선스 패션 잡지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패션비즈니스, 2(1), pp.57-70.
- 7) 장지선, 김민자 (2010). 패션잡지 스토리텔링 특징과 내용의 변화: 1999년과 2009년 패션잡지 보그의 브랜드 광고화보를 중심으로,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0(4), pp.35-46.
- 8) 조우영 (2004). 패션 잡지에 나타난 스타일링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77.
- 9) 조우영 (2011). 패션 잡지에 나타난 스타일링 연구: 이태리 보그의 패션화보를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7(1), p.586.
- 10) 최세영 (2004). 패션 잡지광고에 나타난 탈 성적광고와 고정화 광고의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57.
- 11) 최지순 (2000). 여성 패션 잡지 표지디자인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64.
- 12) 홍예영 (2003). 라이선스 패션 잡지의 국가별 디자인 경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91.
- 13) 글로벌리즘 (2012. 8. 1). ET news, retrieved 2012. 8. 1. http://ct.etnews.com/ct_view.html?id=4&page=7&sel=83
- 14) Tim, O. S. (1994). Globalization, key concepts in communication and cultural studies, London: Routledge, pp.130-131.
- 15) 윤호병 (1999). 다문화주의와 문화-글로벌리즘, 비교문학, 24(-), p.56.
- 16) 최유탍 (2009. 11. 12). 세계화, 지방화 동시진행 지구촌 글로벌리즘 시대, 기호일보, 자료검색일 2012. 8. 1.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8509>
- 17) 윤호병. 앞의 책, p.54.
- 18) 조우영. 앞의 책, p.8.
- 19) 이선재, 고영림 (2004). 패션사진,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p.15.
- 20) 차배근 (1990). 커뮤니케이션학개론-상, 서울: 세영사, pp.40-41.
- 21) 김선영. 앞의 책, p.1569.
- 22) 김은지. 앞의 책, p.3.
- 23) 노혜은. 앞의 책, p.16.
- 24) 조우영. 앞의 책, p.586.
- 25) 김은지. 앞의 책, p.54.
- 26) 이현정. 한 브랜드의 세계화를 위한 패션 사진의 한국적 이미지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6-69.
- 27) 김은지. 앞의 책, pp.1-62.
- 28) 이현정. 앞의 책, pp.56-69.
- 29) 김지미 (2012. 2. 14). 한국을 담은 패션, 뉴욕커를 홀리다, 매일경제, 자료검색일 2012. 8. 1. <http://media.daum.net/economic/consumer/newsview?newsid=20120214155743108&srchid=IIM%2Fnews%2F50469920%2F2302fa3f23275140f7a5ac1c165fa0fd>

Glocalism Trend in the Pictorials of Domestic Licensed Fashion Magazines

Kim, Sun Young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unch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research was designed to look into the trend featured in pictorials of domestic licensed fashion magazines from the viewpoint of glocalism, and help develop fashion styling so as to reflect cultural identity by confirming recognition of our culture and widening comprehension. Both literary review and case studies were conducted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relevant literature. In selection of the pictures for the case studies, small pieces reminiscent of traditional Korean costume or unique images that appeared in 『Vogue』 issues and 『Harper's Bazaar』 issues from January, 2007 to August, 2012 were used. 159 pieces that reflect glocalism were finally extracted. The trends expressed in licensed fashion magazines about glocalism are as follows. First, out of the aesthetic criteria in ideal beauty confined only to western model, local characteristics were marked with pictorials using domestic models and multinational fashion models pictured in other pages of the magazine. Second, unique Korean characteristics were stressed through concept evolution of festival days or seasons unique to the country. Third, a new image of traditional costume was created as a hybrid type that mixed traditional and western clothes and deconstruction of method of dressing, generating glocalism beyond the local boundaries. Fourth, efforts were exercised to reflect the glocalism trend in artistic expression in cooperation with domestic artists, and Korean costume culture was sublimated into a modern art work by integrating traditional costumes with the arts.

Key words: licensed fashion magazine, pictorial, glocalism